

이통 3사, 오늘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제출

'5G 주파수' 전쟁 본격 개막... '수 싸움' 승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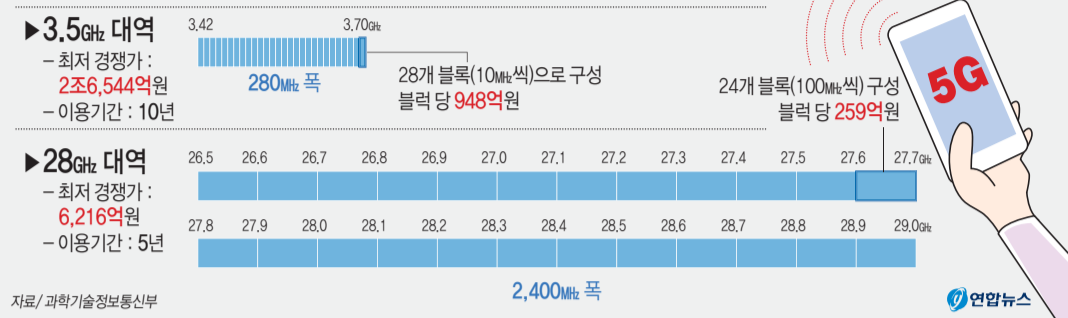
주파수 넓을수록 고품질 서비스 제공
5G 구축 유리한 '3.5GHz' 선점 치열할 듯

이동통신 3사가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출사표를 내놓는다. 향후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에 이동통신사의 '수 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오후 2시 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한 시간 간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주파수를 넓게 확보할수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G 시대에는 누가 어떤 주파수를 갖느냐에 따라 차세대 서비스인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VR·AR) 등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5G 주파수 경매 대역



이날 이동통신사들이 제출할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통해 주파수 경매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는 각 사업자마다 대역별로 낙찰 받고자 하는 최대 대역폭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은 3.5GHz(기가헤르츠)의 경우 100MHz(메가헤르츠), 28GHz 대역은 100MHz다. 특히 3.5GHz 대역은 주파수도 달 범위가 비교적 넓고 전파가 휘어지거나 통과하는 휘절성이 강해 향후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

다. 이 때문에 수요가 많아 이동통신 3사 모두 100MHz를 기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할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혼·간섭 방지 대책, 앞으로의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내용이 기재된다. 향후 이동통신사의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되는 셈이다.

경매는 클릭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낙찰 받을 주파수의 양을 정하고, 2단계에서 밀봉입찰로 주파수 위치를 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는 각사에 맞게 블록 양과 위치를 구성할 수 있다.

3.5GHz 대역은 10MHz씩 28개, 28GHz 대역은 100MHz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경쟁가격(시작가)은 3.5GHz 대역(280MHz폭) 2조6544억원, 28GHz(2400MHz폭)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3.5GHz 대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3.5GHz 대역 경매는 총량제한 폭이 100MHz로 정해져 3사가 각각 10개-10개-8개 블록 혹은 10개-9개-9개 블록 등으로 나눠 가지는 시나리오만 가능해 비교적 균등할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매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경우 경매가 조기에 끝나 '주파수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경매는 15일 진행된다. 적격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 기술력 등을 평가한다. 적격심사의 경우 이동통신 3사 모두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oo.co.kr

유라시아 노선 확장... 中 22개지역서 화물수송

>> 1면 'CJ대한통운...'서 계속

유럽 14개국 30개 지역 사업 확장

기존엔 중국 청두역에서만 서비스 됐지만 2단계 확장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8개성, 3개 직할시, 총 22개 역에서 유럽행 화물수송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각 성의 성도나 주요 경제거점 도시들을 망라한다.

또 유럽에선 기존 3개역에서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과 독립국가연합 14개국, 30개 역으로까지 사업지역이

확대됐다. 주요 국가 수도나 경제거점, 물류 중심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중국, CIS 대부분 지역에 철도와 트럭을 통한 복합화물운송이 가능해져 중국항 52개, 유럽항 74개의 노선을 운영하게 됐다.

유럽, 독립국가연합, 중국의 철도 운송 종착역에서 생산거점, 물류센터까지의 트럭을 통한 '문앞운송 서비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유라시아 지역에 17개 지점을 보유하고 연간 15만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세는 단위)의 컨테이너 철도운송을 수행하고 있는 철도

운영 전문업체인 RTS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뢰도 높은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측은 화주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향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주요 도시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TSR로까지 넓혀 범 유라시아 물류 대동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북철도 및 육로연결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의 라오닝성을 비롯한 동북3성 지역에는 앞서 오픈한 선양 플래그십 센터를 모델로 해 더 많은 물류 기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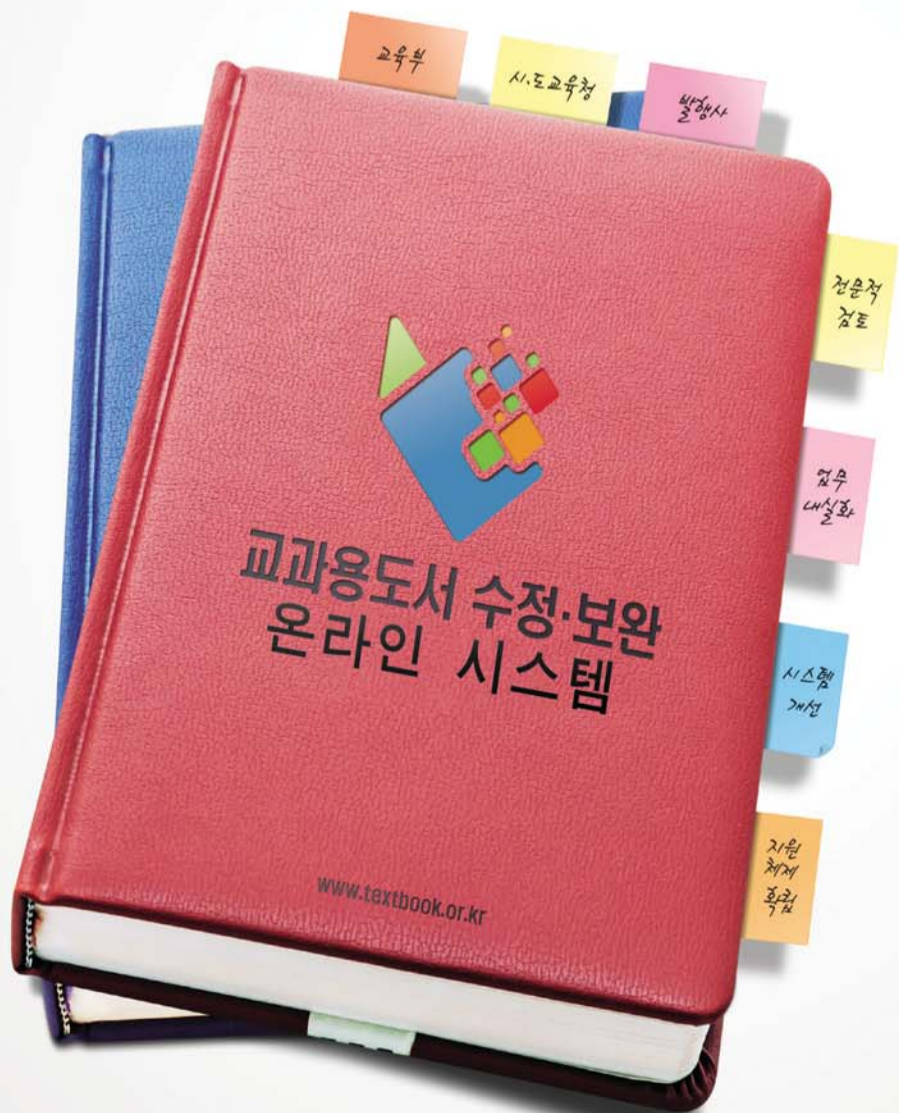


중국 쓰촨성 청두역에서 유럽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열차.

이 들어설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대륙 철도 연계상품 개발과 선양 플래그십 센터 등 물류기반시설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대륙물류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TCR을 통한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를 TSR까지

확장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영역을 넓히게 되면 우리의 '물류영토'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CJ대한통운의 물류 플랫폼을 통해 '2020년 글로벌 TOP5 물류기업'을 향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수정·보완 내용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전달합니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정·보완 업무 내실화 및 시스템 개선, 수정·보완 시스템 지원 체제 확립으로 교과용도서의 질을 제고합니다.

교과용도서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교과용도서 질을 제고하고, 교실 수업을 지원하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용방법
www.textbook.or.kr
 1566-8572 (T105 상담전화)